

대학과 기업이 함께 키우는 인재 호서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취업 문은 좁아지고 기업은 실무형 인재를 찾으면서 ‘대학 졸업 후 취업’이라는 공식도 달라지고 있다. 대학에 다니며 취업과 실무 경험을 함께 쌓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가 주목받는 이유다. 호서대는 물류유통학과,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첨단산업시공학과 등 세 개의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운영한다. 2027학년에 두 번째 신입생을 선발하며(표), 신입생의 3년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특히 충남 지역의 유망 중견·중소기업과 연계해 채용형 교육과정을 구축, 대학-기업-지역이 함께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취업과 학위, 실무 경험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호서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살펴봤다.

취재 이지혜 리포터 wisdom@naeil.com

도움말 김기현 교수(호서대학교 첨단산업시공학과) · 김준록 교수(호서대학교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 이성희 교수(호서대학교 물류유통학과)

표_ 2027 호서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학과(모집 인원)	전형	전형명	전형 방법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물류유통학과(30명)	교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교과 60+면접 40	×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40명)				
첨단산업시공학과(30명)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란?

신입 직원 채용을 전제로 한 채용형 계약학과 중 하나다. 기업 근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교육과정이라 면접 역시 계약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함께 진행하는 특징이 있다. 1학년 때는 대학에서 전공 이론과 실무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2학년부서는 근무와 학업을 병행하며 3학년까지 4년 과정을 이수, 조기 졸업한 뒤 협력 기업에 채용된다. 학사 학위와 실무 경험을 함께 쌓을 수 있다는 점, 비교적 빨리 사회에 진출해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세상을 연결하는 공급망 전문가를 키운다

물류유통학과

오늘 주문한 물건을 다음 날 받아보는 새벽 배송과 해외 직구가 일상이 된 시대다. 그만큼 물류는 단순한 운송을 넘어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다. 물류유통학과는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 즉 물류·유통·공급망(SCM) 분야를 다루며,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은 스마트 물류 시스템, 물류 시뮬레이션, 데이터 기반 물류 관리 등 최신 산업 트렌드를 적극 반영했다. 1학년 때는 경영과 물류의 기초 개념을 익히고, 2학년 때 기업의 물류 운영과 공급망 관리 능력을 다진다. 동시에 협력 기업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며 실무 경험을 쌓는다. 3학년 때는 ‘SAP컨설팅’ ‘유통과 판매관리실습’ ‘ESG경영’ 등 심화 과목으로 전문성을 갖춘다. 광천김, 코츠, 건영포장 등이 이 학과와 협약을 맺고 있다.

호서대 물류유통학과 이성희 교수는 “물류유통학은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의 전 과정과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학문이다. 1학년은 수업에서 실제 기업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안을 제시한 뒤 기업의 피드백을 반영해 개선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물류 산업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졸업 후에는 물류·유통기업을 비롯해 무역·해운·항만기업이나 제조기업의 물류·유통·구매 부서에서 물류정보 시스템 기획·운영이나 데이터 분석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스마트 물류 시장의

이중서

호서대 물류유통학과 1학년

“세계 물류 잇는 전문가 꿈꿔요”

Q | 물류유통학과 진학 이유와 인상 깊었던 수업은?

대학 학비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우연히 뉴스를 통해 호서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알게 됐고, 학비 지원은 물론 학생 신분으로 취업까지 연계된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수업 중 ‘경영학원론’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물류·유통의 기본 개념과 기업 경영의 원리를 배우며 SCM 등의 전공 기초를 다질 수 있었거든요. 특히 교수님께서 세계 경제의 흐름과 실제 기업 사례를 함께 알려주셔서 물류와 산업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Q | 예비 후배들에게 조언해준다면?

3년 만에 학위를 따고 실무 경험을 함께 쌓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관심 있는 후배들이 꼭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물류·유통 분야는 국제 물류의 비중이 높아 영어 실력이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만큼, 고교 때부터 꾸준히 영어 실력을 쌓아둘 것을 추천해요.

급성장으로 전문 인력 수요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물류와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고 유통 산업의 변화에 흥미를 느끼는 자기 주도적인 학생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 면접에서는 협약 기업의 기본 정보와 직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본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조언한다.

거대한 AI 물결의 심장을 만든다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생성형 AI와 자율주행차, 로봇,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호서대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는

미니 인터뷰

문술

호서대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1학년

“반도체 공정 실습으로 현장 적응력 키워요”

Q |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에 진학한 이유와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된 고교 학습과 활동은?

원래 간호·보건 계열에 관심이 있었지만, 의학과 첨단 산업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반도체에 흥미를 갖게 됐어요.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필요한 핵심 산업이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해 호서대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에 입학했구요.

고등학생 때 <화학II> <생명과학II>를 공부하며 실험 설계부터 결과 분석까지의 사고 과정을 체득했는데 대학에서도 실험을 많이 해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Q | 가장 인상 깊었던 전공 수업은?

‘반도체PKG기초’ 수업이 기억에 남아요. 반도체 패키징 랩실에서 후공정 실습을 하며 이론으로만 배웠던 내용을 장비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신기하고 뿌듯했죠. 실제 산업 현장과 비슷한 환경을 경험하면서 전공이 훨씬 가깝게 느껴졌어요.

레이학과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특화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과정은 기초 이론부터 첨단 공정 기술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된다. AI 첨단 패키징 기술과 디스플레이 공정, 반도체 장비 운영 등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술을 배우고 실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장비로 실습 중심의 교육을 받는다.

학년별로는 1학년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구조와 기초 프로그래밍 역량을 익히고, 2학년에는 기초 공학 이론 및 반도체 설계·제조 공정에 대한 이해를 쌓고 첨단 클린룸에서 반도체 공정 실습을 하며 데이터 분석 능력을 키운다. 3학년에는 마이크로프로세스, 반도체 분석·평가를 다룬다. 대표적인 협약 기업으로 글로벌스, PNP, 티케이엘리베이터 등이 있다.

호서대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김준록 교수는 “호서대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밀집한 천안·아산권에 위치해 산업 현장과 연계한 교육이 가능하다. 교내에 반도체 클린룸과 패키징·테스트 장비를 갖춰 학생들이 실제 현장과 같은 환경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만큼 반도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설명한다.

졸업 후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기업을 비롯해 소부장 기업, 반도체 공정 및 패키징 분야, 생산 기술과 품질관리, 자동화 설비 운영, 계측·분석,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입학과 동시에 기업과 매칭돼 학업과 실무를 병행하는 만큼 협업과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또 공학 계열의 기초가 되는 수학과 물리를 고교 때부터 탄탄하게 다져두면 대학 수업은 물론 현장 실무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한다.

첨단산업AI공학과

생성형 AI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AI를 직접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AI를 첨단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AI의 활용 범위는 공장 설비 이상이나 반도체 공정의 불량률을 예측하는 등 갈수록 넓어지는 추세다.

호서대 첨단산업AI공학과 김기현 교수는 “첨단산업AI공학의 핵심은 첨단산업의 현장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익히는 것이다. 재학생은 생성형 AI나 특허 분석 전문 AI 같은 다양한 분석 도구를 활용해 졸업 후 채용될 기업의 프로젝트를 위한 ‘AI Full Stack’ 개발 시스템을 구현한다”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교육과정도 현장의 문제를 AI로 풀어내는 방법을 배우도록 설계돼 있다. 1학년 때 ‘AI개발공학’ ‘AI제조공학’ ‘산업현장문제해결이해’ 등의 교과목을 통해 AI의 기초를 배우며 프로그래밍 역량을 키우고, 2학년 땀 자율제조형 스마트 팩토리 와 데이터 및 센서 신호처리 기술을 익힌다. 3학년 땀 AI 기반 공정 최적화와 품질관리 역량을 심화하며 실무 능력을 완성한다. 대표적인 협약 기업은 MS가스, 동신이앤티, 동호테크 등이 있다.

김 교수는 “1학년 1학기 ‘산업현장문제해결이해’ 수업에서 기업과 소속 학생을 매칭하여 팀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때 여러 AI 서비스로 기업의 기술과 시장, 특허를 분석해 사업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2학기에는 기업의 피드백을 반영해 최종 결과물로 고도화한다. 2학년부터는 학생 전원이 협약 기업에 채용되는데, 이 중 일부 학생은 자신이 작

정일용

호서대 첨단산업AI공학과 1학년

“AI를 만나 진로 바꿨죠”

Q | 첨단산업AI공학대에 진학한 이유와 인상 깊었던 수업은?

타 대학 국어국문학과에서 공부하던 중 생성형 AI를 자주 활용하면서 AI가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관심이 생겼어요. 직접 AI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고, 고민 끝에 첨단산업AI공학대에 재도전했죠. 입학 후 ‘AI개발공학’ 수업을 들었는데, 파이썬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익히며 프로그래밍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어서 기억에 남아요. ‘산업현장문제해결이해’ 수업도 협약 기업의 직무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어 도움이 됐어요.

Q | 후배들에게 조언한다면?

진로를 다시 선택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실무 경험을 빠르게 쌓고 싶다면 조기 취업형 계약학도가 좋은 선택지가 될 거예요. 망설이기보다 한번 도전해보길 바랍니다.

성한 사업보고서와 연계된 기업의 실제 수주 과정에 참여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한다.

졸업 후에는 기계·반도체·미래자동차·로봇·장비·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AI 기반 연구개발, 생산기술, 스마트 공장 운영, 공정 최적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